

신안군 어선 임대사업 '효과 만점'

2019년 전국 첫 도입 8척 운영
을 수요조사 215명 101척 신청
정부 시책 확대 국비 지원해야



신안군이 어업에 종사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어선을 사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임대로 지원한 어선 천사1호. <신안군 제공>

신안군이 추진한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 임대사업' 효과가 만점이다. 어업에 종사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어선을 사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어업기반을 지원하는 시책이다. 지난 2019년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도입해 타 지자체의 주목을 받았다.

22일 신안군에 따르면 군은 현재 군비 27억원을 투입해 8척의 어선을 임대 운영 중이다. 임대어선은 흑산 4척, 비금·중도·도초·하의면에 각 1척이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2900만원의 임대료와 원금이 징수됐으며 6억5000만원의 위판고를 올렸다.

성과가 높다보니 신안군은 올해에도 5억원의 군비를 확보해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안군은 지난해 정부 시책사업으로 도입해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지만, 국비 지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올해 다시 한번 국비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어선 임대사업은 어선·어구를 신안군이 구입, 어업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어업인은 연간 사업비의 0.5%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면 된다. 임대료 납부와 함께 진행되는 원금상환이 완료되면 어선의 소유권을 어업인에게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올해 사업추진에 앞서 실시한 수요조사에 215명의 어업인이 101척의 어선을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면서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된다면 더 많은 청년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년들이 섬으로 돌아와 일 자리를 갖고 소득을 올려 모두가 잘사는 신안건설을 목표로 천사8호에 이어 천사100호까지 탄생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과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 전남도 친환경농업대상 2년 연속 최우수

전국 최대 친환경 인증면적 5458ha

해남군은 2020년 전남도 친환경농업대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남군은 2년 연속 친환경농업대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축산분야에서 북평면 김소영 씨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해남군은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인 친환경 인증면적 5458ha를 달성, 친환경 농업1번지 해남의 위상을 입증했다.

이는 전년대비 116ha 증가한 것으로 유기 2508ha, 무농약이 2949ha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기농 면적이 1200ha에서 2배 이상 증가했고, 배 이외의 과수, 채소 등 94개 품목이 전체 인증면적의 44%(2448ha)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농업의 질적 도약도 이뤄졌다.

해남군은 올해도 유기농업의 지속적 확산과 인증 품목의 다양화,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등 22개 사업에 16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또 지역 임산부에게 연간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꾸러미 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잡곡 도정시설 기반구축에 7억1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예정이다.

무농약 친환경대추 생산·유통 기반시설인 친환경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사업에도 3억원이 지원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올해도 유기농 중심의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구축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노력하겠다"며 "친환경 농업 1번지 해남의 위상을 지키고 체험·관광과 연계한 유기농업 확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영암군, 왕인문화축제 '온택트 예술무대' 참가 단체 모집

영암군은 온라인 영암왕인문화축제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온택트 영암예술무대'를 준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무대는 영암지역 문화예술인의 비대면 공연 무대로, 작년 이전에 제작한 공연 영상을 축제 대표 채널인 유튜브 '영암왕인TV'를 통해 공개한다.

군향토추진위원회는 '온택트 영암예술무대'에 참가할 관내 문화예술단체와 동호회 참가팀을 모집한다.

참가 자격은 영암군에서 활동 중인 5인 이상 문화예술 단체와 동호회로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영암에서 2건 이상 문화예술 활동을 한 실적이 있으면 된다.

순수 문화예술 활동 단체가 아닌 학교·종교단체

소속이거나 친목모임은 참가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2월 26일까지다.

'2021 온라인 영암왕인문화축제'는 4월 1일부터 16일까지 축제홈페이지(www.왕인문화축제.com), 유튜브 채널('영암왕인TV')을 통해 즐길 수 있다.

대표 프로그램인 특집 다큐멘터리 '왕인박사 랜선으로 일본가오!', 공개방송 영암온에어 '즐거운 오후 2시' 등 2개 부문 16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관내 문화예술팀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예술 활동 기회를 주고자 '온택트 영암 예술무대'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청정' 완도 수산물 미국 소비자 입맛도 잡았다

미국 율타리USA 설맛이 판촉전

24개 특산물 6만3000달러 판매

청정바다 완도 수산물이 미국 소비자 입맛을 사로잡았다.

22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4~14일 미국 율타리USA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 몰에서 진행한 '설맛이 완도 수산물 미국 판촉전'을 통해 6만 3000달러(한화 약 7000만원)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

완도군과 오랫동안 글로벌 교류 협력 관계를 구축해온 미국 대형바이어 율타리USA와 연계한 이번 행사는 직매장 3곳(LA, 라미라다, 토렌스)과 율타리USA 온라인 몰, 미주 최대 여성 커뮤니티(Missy USA)를 통해 동시 진행했다.

판촉전에는 완도 다시마전복수산, 홍일식품, 세계로수산 등 총 3개 업체가 참가해 24개의 완도 특산품을 팔았다.

인기 판매 품목은 냉동 전복, 건 매생이, 도시락 김, 모듬해초였다고 완도군은 전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냉동 전복을 구매한 미국 동부지역 소비자는 녹지 않고 신선하게 배달됐다"면서 "이 정도의 신선도를 품은 전복은 미국에서 보기 힘들다고 만족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모듬해초를 구매한 또 다른 소비자도 다양한 해



완도군은 지난 4일부터 11일간 미국 율타리몰에서 열린 '완도 수산물 미국 판촉전'에서 6만3000달러의 판매 실적을 거뒀다. <완도군 제공>

초를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좋았고,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는데 식감과 맛이 좋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고 완도군은 설명했다.

완도군은 코로나19로 해외 출장이 어려워진 만큼 해외 바이어를 활용한 해외 판촉전 등을 통해

완도 특산물의 우수함을 알려 나가는 데 더욱 힘을 기울인다. 완도군은 지난 추석에도 '완도 수산물 미국 율타리USA 온라인 판촉전'을 통해 3만6천 달러의 매출 실적을 올렸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올 영광사랑상품권 150억 늘려 500억원 발행

영광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대폭 상향했다.

22일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올해 영광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전년(350억원) 대비 150억원 늘어난 총 500억원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발행 규모 대폭 상향은 영광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과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있다.

올해 발행 목표액 500억원 중 일반 발행액은 약 350억원이며, 농어업인 공익수당을 비롯한 각종 정책수당으로 약 150억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영광군은 상품권 발행규모 확대뿐 아니라 주민들이 쉽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형 상품권 결제방식을 모바일 병용 결제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여기에 모든 연령층이 편리하게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2400곳인 가맹점 수도 2700곳까지 확대한다.

발행량 증가로 우려되는 상품권 불법유통 차단을 위해 특별점검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불법 환전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법 위반자에 대해선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고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지역 자원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촉진 효과를 가진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우 기자 jylee@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